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봐어도)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24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26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라.” 28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29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30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31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묵상하기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29절),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믿음을 폄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못 자국과 창 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만 믿겠다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말에 기꺼이 응해 주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나 역시 의심스러운 생각, 믿어지지 않는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분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 속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메시아,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믿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만으로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만져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때때로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 것이 있나요?
이제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없고 뜨거운 체험을 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주님께 대한 저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1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2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4 날이 밝아 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7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 두었던 겹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 들었습니다. 8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아침 식사

9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1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1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3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14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3 묵상하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곁에서 직접 보았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기까지 했던 제자들이 어느새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때처럼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빵과 생선으로 채우시며 따듯하게 보듬으신 것처럼 주님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려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내가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4 적용하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수련회의 기억,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격했던 기억,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눈물 흘렸던 기억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깊이 경험했던 때의 감격을 잊은 채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둔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얻은 감사와 결단이 내 마음에 얼마나 남아 있나요? 예배가 끝나면 너무도 쉽게 그 감격과 기쁨을 잊지는 않나요?
- 나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 안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나는 알아보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제 일상에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

15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나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16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떼를 쳐라.” 17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떼를 먹여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19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를 따라라

20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1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23 이 말씀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24 이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5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알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 두지 못할 것입니다.

3 묵상하기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열혈 제자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질문에 장담하듯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치고도 이미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기소침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의 무너진 마음을 만지시고, 새로운 사명(15-17절)을 주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자기 열정만으로 나설 때는 죽음을 피해 다니기 바빴던 베드로는 이제 복음에 이끌려 다니고, 기꺼이 주를 위해 죽는 진짜 제자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틈만 나면 흔들리고 넘어지며 시시때때로 사명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 돌리곤 하지만(21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따라라!”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은 나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4 적용하기

주님은 너무나 쉽게 고백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나를 향해서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원하고 선택하는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이제는 내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주님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초대하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길이어도 “나를 따라라” 라는 명령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 부르심의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두고 사명의 크기나 역할을 비교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어떤 길을 가게 하시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성전 재건을 명령하심

1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2 우리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3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와의 말씀입니다. 4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6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 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8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9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 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11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 내는 것에, 사람에,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 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됨

12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13 여호와와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14 여호와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집을 짓는 일을 했다. 15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24일의 일이다.

3 묵상하기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기적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 건축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략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민족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은 여러 방해 요소들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학개' 말씀은 성전 건축은 뒷전에 둔 채 자기 살기 바빴던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5절)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 내 마음과 일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4 적용하기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먼저여서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학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여 다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처럼 내 안의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둘 때, 나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5절)는 질문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그동안의 내 발자취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최우선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백성을 격려하심

1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2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3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4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5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과 평안을 약속하심

6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 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7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8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9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3 묵상하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백성은 다시 사기를 잃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전의 크고 웅장한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 불품이 없었고(3절), 궁핍하고 어려운 형편도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새로 지은 성전이 겉보기에는 초라할지 몰라도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보다 더 클 것이고(9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8절). 지금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지금 나를 초청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혹시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대로 가라”,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늘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내가 상상도 못할 영광과 평안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9절).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믿음으로 하는 나의 선택과 행동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눈앞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용기를 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결심했나요?
- 주님의 시선과 달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 스펙, 환경 등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 나의 시선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도 힘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 붙들고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10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11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12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 옷자락 속에 싸 들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음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고 물어 보아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13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만약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만졌다면 그것도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집니다”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14 그러자 학개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것이 모두 부정한 것이다.

순종한 백성이 받을 복

15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와 성전에 돌 하나를 다른 돌 위에 쌓기 전에는 어땠느냐? 16 그때는 곡식 20섬을 쌓아도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서 50통을 길러 와도 20통뿐이었다. 17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18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와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19 창고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20 그 달 24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학개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21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22 내가 왕국의 왕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 버리겠다. 내가 전차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뒤엎을 것이다. 말들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형제의 칼에 넘어질 것이다.’ 23 만군의 여호와와가 하는 말이다. ‘그날에 내가 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와가 하는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인장 반지처럼 만들겠다.’ 만군의 여호와와가 하는 말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기도' 로 마칩니다.